

‘강진청자축제’ 내년부터 겨울축제로 열린다

‘불과 빛’ 테마 이색 축제 추진... 내년 2월23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

강진의 대표적인 축제인 강진청자 축제가 개최시기를 겨울로 옮긴다. 강진군은 제51회 강진청자축제를 내년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7일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강진군은 최근 강진청자축제 상인 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통해 축제 개최일을 최종 결정했다.

개최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9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 참석자의 87%가 겨울축제 개최에 찬성함에 따라 본격적인 축제 일정과 프로그램 준비에 나섰다.

캠핑촌처럼 가족과 함께 간식을 구워먹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한 ‘파이어 피트 9292’, 캠프파이어와 새해 소망을 담아 태우는 ‘화목(和睦) 소원 태우기’, 이글루, 눈사람 불꽃, 팽귤 포토존 등 어린이를 위한 겨울 분위기를 포토존과 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강진 스노우파크’ 겨울 대표 스

포츠인 ‘눈썰매장’ 등 계절적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MZ대를 겨냥한 야간 경관조명 ‘빛의 조형물’로 SNS 업로드를 위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글로벌 대중 연날리기, 황금 청자를 찾아라, 화목가마 장작패기, 스노우 오르골, 청자물레체험 및 코일링 체험 등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할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2월 23일 개막식 이후 개막 축하쇼

공개방송과 트롯 마당극, 에어돌 버스킹, 문화예술단체의 무대 등 공연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구성했으며, 경품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축제 비수기인 겨울 틈새시장을 노려 강진만의 특화된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자리잡을 충분한 승산이 있다”며 “‘불’과 ‘빛’을 활용해 겨울이라는 시기적 한계성을 넘어 색다른 볼거리가 있는 특별한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청자축제는 그동안 8월 여름에 열렸다. /강진=한홍주 기자

진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소외계층에 1200포기 전달



진도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열렸다.

지난 5일 열린 봉사 활동에는 진도군 새마을회원과 예비군 지휘관, 상근병 등 총 100여명이 1200포기에 달하는 김장김치를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이들은 겨울 김장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맛있는 김장 김치를 만들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성을 전달했다.

특히 진도군 새마을부녀회와 지도자 회원들은 1,200포기의 김장 진행을 위해 며칠 전부터 김치 양념을 만들기 위해 일손을 모았다.

진도군 새마을회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 빨간 양념 범벅이 된 모습들이었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 450세대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김치를 선물했다”고 말했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추워진 요즘에 봉사자들의 정성이 지역 사회에 온기를 더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영암, 제주도 대봉감 판촉행사 ‘인기’... 흥시 완판행렬

우수성 홍보 · 판로개척



영암군과 금정대봉감농업조합원이 동체 제주도 소비자대상으로 하는 대봉감 판촉행사가 큰 매봉성과를 올리며 인기를 끌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영암의 대표 특산물인 청정 대봉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한 것으로, 대봉감 흥시, 말랭이, 대봉감 식혜 등 가공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대봉감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로 스카프를 만드는 등 독특한 자연 체험활동이 함께 진행돼 소비자들의 눈길을 붙잡았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제주 농협 하나로마트 본점과 노형점에서 진행된 이번 판촉행사는 예상치 못했던 열띤 호응에 힘입어 대봉감 및 흥시 5kg기준 1800박스, 말

랭이 500g기준 700여 개를 판매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흥시는 판촉행사 진행 중 완판을 기록했다.

영암은 연간 1만 2000여 톤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봉감 주산지로서 연평균 기온이 높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가을철 밤과 낮의 일교차가 커 생산되는 대봉감의 당도가 높고 찰기가 많아 산미정 지리적 표

시 17호로 지정되는 등 전국에서 그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봉감 재배농가들과 협조하여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우리 대봉감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시름을 덜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완도군의회, 30년 유지한 의정방식 확 바꾼다

행정사무감사 회의방식으로... 군정 질문·답변 시기도 조정

완도군의회가 풀뿌리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년 간 유지해 왔던 의회 운영방식을 확 바꾸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완도군의회는 6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지난 30여년 동안 유지해 온 정례회와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방식을 전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시회 7~8회, 정례회 2회 등으로 운영되는 의회 의사일정이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는 데다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성과와 균형성이 떨어진다는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 회의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회의방식으로 전환하면 집행부 감시활동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의 알 권리 충족,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 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완도군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완도군의회는 군정 질문·답변도 시기와 방식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연말에 실시했던 군정 질문·답변을 연중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

환하기로 하고 타 지방의회 벤치마킹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원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읍면 순회방문도 생활현장 방문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다.

완도군의회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년 첫 임시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허공희 완도군의회 의장은 “의회 의사일정 운영방식 개선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라며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해남 옥천농협 ‘간마늘 가공센터’ 준공

연간 1000톤 생산... 현대화 설비 갖춰 부가가치 향상



해남군은 북일면 금당리에 가공실 등을 갖춘 옥천농협 간마늘 가공센터를 준공했다고 6일 밝혔다.

간마늘 가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인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3500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7억8300만원이 투입됐다.

마늘 투입에서부터 껍질까지, 분류, 포장까지 가능한 간마늘 자동화 기계장비 등 현대화 설비를 갖추고, 연간 1000t의 간마늘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간마늘 공장 준공으로 전국 주산지인 해남마늘의 안정적인 수급

은 물론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인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3500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7억8300만원이 투입됐다.

명현관 군수는 “간마늘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신 기반시설이 구축됨으로써 수급안정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신안 해상풍력 상생협의회’ 출범

해상풍력 특별·지원금 운영·상생모델 발굴 등 모색



신안군은 5일 호텔 소노캄 여수에서 ‘신안 해상풍력 상생협의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김장수 신안군어업인연합회장,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이도명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의체 위원장, 어업인단체 대표와 발전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의회는 ‘신안군 해상풍력 발전 및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어업인연합단체와의 협의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각 조합별 어업인단체 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상생협의회에

서는 해상풍력 특별·기본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 어업인 대체사업 및 상생모델 발굴, 어업인 피해보상 방안 등 논의를 통해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해상풍력 상생협의회를 통해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어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상풍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황토깡벌에서 자라는 우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